

# '3대 전략, 8대 정책으로 책 중심 대한민국 구현' 선언, 문화기반 개선 기대

문화관광부가 지난 5월 21일 이창동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판·인쇄문화 진흥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 참여정부의 출판·인쇄 문화정책에 대한 열개를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은 거시적으로 '책 중심의 대한민국'을 표방하면서 ▶ 5년 동안 출판 인쇄 산업에서 세계 5대국가의 반열에 진입하는 기반을 다지고 ▶ 동북아 출판·인쇄 중심시장을 구축하며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한다는 3대 전략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을 비롯 양서출판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자출판시장의 주도국 지위 확보, 인쇄문화산업 진흥, 출판유통 현대화 기반조성, 출판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 출판문화 육성, 남북 출판교류 활성화 등 8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이미 추진돼 온 연속사업 부문과 신규사업 부문으로 대별되는데 이들 사업을 위해 문화관광부는 2007년까지 국고 1,348억 원, 민자 3,569억 원, 기금 등 융자 1,400억 원, 지방비 8억 원, 공공자금 240억 원을 포함 6,56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아시아 어린이 도서 축제' 창설, 출판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사단법인체 형태의 '한국출판유통진흥원' 설립, '출판·인쇄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연속사업 중에서는 출판문화진흥재단 재원 300억 원 확충, 서점과 관련된 조세 제도 합리적 개선,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사업 지원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정책추진으로 지식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복안이다.

이번 발표는 출판문화 정책이 기반기능 조성에 집중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추진을 권장하겠다는 이창동 장관의 의지가 이 정책에도 반영돼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의욕적인 사업들 중 일부는 좀더 과감한 드라이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서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신용카드 업계와 협의, 중소 서점에 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아예 없애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서점에 한해 건물주의 임대소득세를 경감시켜 주는 방법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서점이 지닌 문화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건물주에게 지인센티브를 주는 선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재원 300억 원 증액도 바람직한 접근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 지금 같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단이 중장기적인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금출연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출판문화계에서는 그러나 출판시장 규모 세계 7위 국가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1천억 원 수준의 재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출판문화진흥 기금이 적절히 지원될 경우 이 기금 효과가 연차적으로 출판문화계에 되돌아오므로 출판시장 규모 10조 원의 1퍼센트 규모로 확충하지는 의견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출판아카데미 운영계획 역시 출판문화계 전문인력 확보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열린 사고를 반영하는 항목이다. 이번 계획에는 9개 교과과정으로 편성, 과정별로 30명을 모집하여 연간 8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출판사 종사자가 13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정책으로 보인다.

한편 출판유통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해 31억 원이 국고로 지원되며 전자책 관련 사업도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시아 중심국제도서전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 향후 정책적 지원이 기대된다.

참여정부의 첫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발전계획'은 산업기반 업그레이드, 산학협동, 세계화 추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당면 과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5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 멀리 보고 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의 산물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관련 단체, 출판·인쇄문화 인사들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역시 정책의 실현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기대감의 표출로 해석된다.